

## 향후 5년 '제주형 라이즈 기본계획' 나왔다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도, 2030년까지 국비·지방비 3250억원 집중 투입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제주' 대표 과제로  
인재양성·지산학연 협력·창업·직업평생교육 초점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RISE·라이즈)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차별성을 내세우며 향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도는 오는 3월부터 2030년까지 5개년 동안 3250억원 (국비 2500, 지방비 750)을 투입해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플랫폼 조성사업'을 대표과제로 하는 제주형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예산 목표액은 국비 500억원을 포함한 650억원 규모다.

5월 도에 따르면 제주는 뛰어난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과 청년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섬이라는 특성상 소규모 생산과 높은 물류비로 산업기반이 부족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라이즈 계획 수립과 관련,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제주'를 표방하며 지역의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배움과 학습, 여가를 결합한 런케이션을 중심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주지역의 전략산업은 관광·1차산업,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및 AI·디지털 대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

도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제주 라이즈 추진 기반 구축사업 (30억원)을 포함해 국비 500억원씩을 투입해 5대 프로젝트와 세부 8개 단위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핵심인재 육성 ▶현장맞춤형 핵심인재 양성 (110억원) ▶스터디 제주 지역정주 해외인재 유치·양성 (32억원) ▶지산학연 이음·돋움·성장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플랫폼 조성사업 (95억원) ▶전략산업 생태계 육성 및 미래혁신역량 강화 사업 (96억원) ▶J-Biz 캠퍼스 창업마루 ▶인재-교육·연구-창업 연계 지원 대학 거점사업 (47억원) ▶흔디평생교육배움터 ▶국민 평생교육대학 및 지역산업 특화 직업평생교육 활성화사업 (38억원) ▶지역사회 혁신 신(新) 수놓음 ▶대학이 이끄는 사회 혁신 및 미래변화 대

응 경쟁력 강화사업 (29억원) ▶지역미래 의료·농림(학교) 혁신 지원사업 (23억원) 등이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이달 중 정부 차원의 지역별 국고보조금(인센티브) 확정 후, 사업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재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RISE센터 부설기관 설립과 사업 수행 대학을 공모해 선정·평가하고,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라이즈 1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인재 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창업, 직업평생교육, 지역현안 등을 중점으로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역의 대학, 혁신기관, 산업계 등과 협력해 지역과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맞춰 라이즈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상공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 드론 쇼'가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 '친환경 스마트 도로' 시대 개막

도, 포장재·녹지공간·AI·가로등 4대 사업 추진  
"도로환경 개선·온실가스 감축 통해 안전 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환경 개선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친환경 도로포장재 도입, 도로 위 녹지공간 확대, 인공지능(AI)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친환경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 4대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5월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사업의 핵심은 기존 도로를 탄소중립 친환경 도로로 전환하고 첨단시스

템을 도입해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데 있다.

도는 도내 모든 도로 보수공사에 친환경 중온아스콘 포장재 시행한다. 중온아스콘은 기존 도로포장재보다 공사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35% 감소(연간 245t)시키고 도로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도는 올해 75억원(국비 50억, 지방비 25억)을 투입해 구국도

와 지방도 등 19개 노선에 도로 보수공사 시 우선 시범 적용한 뒤 도내 모든 공사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탄소중립 녹색 도로' 조성사업에 나선다. 지방도, 구국도, 시도, 농어촌도로 중 이용빈도가 낮은 일정 구간을 선별해 안전지대와 교통섬으로 활용한다. 32억원(국비 16억, 지방비 16억)을 투입해 안전지대 46개소(1ha)와 회전교차로 원형 교통섬 29개소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녹지공간을 활용해 4000그루 수목식재 시

연간 17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5억원을 들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도로정보 수집과 관리를 위해 스마트 도로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구국도 1~2개 노선 도로 순찰차량과 제설차량 등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도로분석 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제주 도로 특성에 맞는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친화적 도로 조명 구축을 위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가로등을 확대한다. 올해 2억원을 투입해 516도로 등 4개 노선에 태양광 가로등 40주를 시범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 올해 제주도의회 회기 127일 확정 첫 임시회는 오는 2월 18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새해 회기 일정이 127일로 짜였다. 2월 올해 첫 회기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친 정례회, 임시회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회기는 모두 127일로 정례회 2회 46일, 임시회 8회 81일이다.

새해 첫 회기는 오는 2월 18~27일 10일간 열리는 '제43회 임시회'다. 이 기간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제주도·도교육청 등의 2025년도 첫 업무 보고가 예정됐다.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올해 첫 도정·교육행정 질문은 4월 임시회(14~25일)에서 진행되는 4월 임시회(14~25일)에서 진행된다. 올해 첫 추경안은 5월 임시회(9~21일)에서 심사된다. 김지은기자

민간아파트 분양가 오름세 거침없다... 5면 / 작년 주민등록인구 역대 최대폭 감소... 6면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고  
도민들의 민생의회!

# 2025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며,  
제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항공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